

“호남권 철도 수혜지역 확대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이창현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장



호남고속철도 2단계·경전선 전철화 등 전라선 고속화 신속 추진 AI활용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추진... 현장 중심 중대재해 예방 앞장

“남해안철도(목포 임성-보성), 경전선(광주송정-목포) 등 예정된 철도 건설 사업을 안전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호남지역 내 철도의 수혜를 입는 지역을 확장하고 그로 인해 지역 경제가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세기 말 산업혁명과 함께 등장한 철도는 안전성과 정시성을 갖추면서 대량으로 사람과 물자를 수송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 철도로 인해 도시가 형성되고, 산업 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철도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남의 경제가 낙후된 것도 철도가 비교적 늦게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그 철도를 건설하는 공공기관이 바로 국가철도공단이다. 지난 2004년 철도청 건설 분야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통합·출범했고, 2020년 국가철도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흔히 알고 있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철도 운영을 담당하는 곳이다.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는 광주·전남의 신규 철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철도시설 유지, 자산 관리 등을 담당한다. 호남권 철도 인프라 구축과 관

리를 책임지고 있는 이창현(57) 호남본부장을 지난 16일 만났다.

전북 임실 출신인 이 본부장은 철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서 건설환경과 철도공학을 전공한 ‘철도맨’이다. 1989년 철도청 공무원으로 입직했으나 2004년 철도청이 공공기관으로 개편되면서 공단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동안 영남·호남·충청본부 PM부장, 사업단장으로 현장을 관리했으며 건설본부 기준심사처장을 역임한 후 지난 3월 호남본부장으로 부임했다. 취임 4개월차를 맞은 이 본부장은 “35년간 오직 철도 현장에서 근무했다”고 소개했다. 오랜만에 호남본부로 돌아온 그는 “호남은 철도 낙후지역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통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국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남본부는 현재 호남고속철도 2단계 등 총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호남본부는 지난 2015년 광주 송정 1단계를 개통한 이후 고막원에서 임성리역 간 44.6km 고속철도 전용선을 신설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를 건설 중이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노반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 전남도를 지나는 철

도 노선들이 호남고속철도를 중심으로 연동되고, 고속 교통 서비스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보성에서 목포 임성리역까지 82.5km 단선을 놓는 남해안철도 사업은 하반기 시운전을 거쳐 내년 1월에 개통할 예정이다. 기존 열차보다 1시간 12분이 단축돼 64분만에 이동이 가능해지며 남해안 동서축을 간선철도망으로 연결해 남해안 관광벨트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호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철도 사업은 광주 송정에서 순천역까지 경전선 전철화사업이다. 경전선 즉 경남과 전남을 잇는 간선철도의 광주송정-순천 구간 121.5km의 속도는 전국에서 가장 느리다. 이 구간에 대해 2조여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단선 전철화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영·호남을 잇는 철도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셈이다.

또 기본 계획 수립 중인 광주-대구 전철과 새만금선 등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도 상당하다. 이 본부장은 “전라선 고속화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무엇보다 ‘안전’을 강조했다. 그는 폭우가 쏟아진 이날도 현장 점검을 다녀왔다.

“호남본부가 관리하는 60개의 현장과 근로자, 직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신경쓰고 있습니다. 먼저 지능형 CCTV 등 AI 기술을 이용해 현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추진

중입니다. 지난 2일 대전에서 열린 공감회의 때도 안전을 위한 최첨단 기술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어 요. 호남본부에서 먼저 시행한 후 전국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장 중심의 예방 체계를 확립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15년간 고속철도만 건설했다는 이 본부장은 2015년 호남고속철도 개통 유공자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철도기술 혁신에도 이바지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철도 공단과 후배들을 위해 쏟았다고 말했다. 유쾌한 그가 직원들과도 격의없이 지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최근 호남본부는 정읍역에 ‘키즈레일’ 철도어린이집을 개원했다. 보육부담을 줄일 수 있어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고, 백양사역 어린이집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또 스타트업라운지 등 철도역 유휴공간을 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호남본부는 올해 3005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한다. 청렴과 소통의 조직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건강한 문화를 정착시켜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 본부장은 “철도가 단순한 교통수단만이 아니라,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지역의 거점 시설로, 지역의 미래 발전을 대비하는 관점에서 건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사진=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여성경제인협회 전남지회 “세계 무대로 뿔 수 있게 지원하겠다”

10주년 기념식...양정숙·박명숙·김효례 대표 등 시상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남지회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여성 경제인들의 경쟁력 향상과 글로벌 시장 도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회는 앞으로 전남도와 함께 역량강화 교육은 물론, CEO경영 연수,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예비) 초기 여성창업기업에 대한 사업과 인큐베이팅 지원 등에 매진할 예정이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남지회는 24일 “지난 23일 10주년 기념식을 맞아 우수 여성 기업들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성원 양정숙 대표 ▲(주)온돌라이프 박명숙

대표이사 ▲취지평건설 김 효례 대표이사 등 3명이 모범여성기업인으로 전남지사 표창 수상, ▲(주)유니피플 강미경 대표가 광주지방 조달청장상을 받는 등 총 17명의 여성기업인이 수상했다.

김영(사진) 지회장은 “전남 여성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기회를 열어 성장하는 데 보다 실질적으로 여성경제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는 축사를 통해 “여성기업의 발전이 곧 전남의 발전이라는 믿음으로, 전남도가 여성경제인이 국내를 넘어 세계로 한자게 뿔어나가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고 답했다.

기념식에서는 또 전남의 여성 친화형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실천을 다짐을 통해 여성 기업 지위 향상 및 권익 보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 지방소멸 대응형 여성 일자리 창출 등을 결의하는 실천다짐 결의의 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기업의 발전에 노력한 공로로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희수 진도군수에 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옷 쇼핑 하는데 향기가 솔솔~

광주신세계, 오감 마케팅 ‘눈길’

광주신세계가 최근 다양한 고객 유치를 위해 유통업계 적극 참여하고 있는 오감 마케팅에 집중한다.

광주신세계는 24일 “오감 중 후각을 활용한 향기 마케팅에 참여한 브랜드들이 고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고 밝혔다.

향기 마케팅에 참여한 대표 브랜드는 ‘후아유’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꼽혔다.

우선 지난 2월 광주신세계 신관 지하 1층에 오픈한 캐주얼 브랜드 ‘후아유’ 매장에서는 ‘캘리포니아 드림’이라는 방향제를 사용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드림은 후아유가 자체 제작한 향기의 방향제로, 지난 2000년 브랜드 첫 런칭때부터 사용되고 있다.

후아유는 매장을 찾은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만족감을 선사하기 위해 향기 마케팅을 시작해 호평을 받고 있다.

본관 7층에 있는 패션 브랜드 ‘내셔널지오그래픽’은 지난 2017년부터 특별 제작한 유칼립투스 방향제를 전국 190여개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브랜드명에 맞는 향기를 제작해 내셔널지오그래픽 특유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전 매장에서 같은 종류의 방향제를 활용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장마철엔 삼겹살 흥캉스...이마트 광주점, 먹거리 최대 43% 할인

내일부터 8월 1일까지

이마트 광주점이 외출이 어려운 장마철에 지친 고객들을 위한 ‘흥캉스’ 특가 프로모션을 연달아 펼친다.

이마트 광주점은 오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국내산 돼지고기 6종, 샤인머스켓, 초록사과를 비롯한 각종 신선식품을 할인가에 선보인다.

우선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는 1등급 이상의 국내산 삼겹살을 100g 당 기존 대비 43% 할인한

1680원에 판매한다. 해당 기간 외에도 29일부터 8월 1일까지는 정상가보다 41% 할인된 1750원에 구매 가능하다.

이밖에도 갈집·생대패·슬림·한입·갈빗대 등 특이 삼겹살 및 오겹살을 100g 당 2180원에 만나볼 수 있다.

이어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는 ‘한우 할인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우 등심·양지·국거리·불고기 등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40% 할인한다. 또 스모

키 훈제오리(500g)도 2개 이상 구매 시 반값에 선보인다.

여름 시즌 과일 할인 행사도 진행된다. 대표적으로 비교적 고가인 국내산 샤인머스켓(500g)과 초록사과(5-8개입)를 신세계 포인트 적립시 각각 8800원에 판매한다.

또 본격 출하되고 있는 초록사과는 전년 대비 봉철 냉해 및 기생충·전염병이 거의 없는 고품질로 마련했으며, 30% 저렴한 가격에 준비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